

‘나주-광주 예타 조사’ 통과 촉구

〈광역철도〉

민주당, 공약 발표...기대감 고조 나주시 공직자 예타 통과 퍼포먼스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가 ‘나주-광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주-광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5,192억원을 투입해 광주 상무역을 시점으로 대촌-남평-혁신

도시-나주역을 연결(L=26.46km)하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이다. 노선이 완성되면 권역 내 이동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게 돼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논의를 시작한 이래 2023년 5월 국토교통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는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가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근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추진 등 공론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최근 빗가람동을 시작으로 남평읍, 산포면, 금천면 등 광역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읍면 지역 이·통장들과 함께 예타 통과를 기원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한국철도학회, 전남도, 광주시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공청회’를 열어 사업 필요성과 추진 현황,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최근 정례 조회에서 공직자 200여명과 함께 예타 통과 기원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광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산업·교육·문화 교류를 가속화하고 광주·전남이 공동 번영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신안군이 최근 신의면 동리 선착장에서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이상주 신안군의회의장, 박종원 신안교통재단이사장을 비롯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교통재단 출범...공영 선박 공공성 확보

신안군이 공영 선박의 전문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안교통재단’을 출범했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의면 동리 선착장에서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이상주 신안군의회의장, 박종원 신안교통재단이사장을 비롯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재단출범식과 공영여객선 취항식을 가졌다.

(재)신안교통재단은 군이 100%를 출연했다. 신안군은 그동안 민간 선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시간 지연, 고장·검사·점검 등의 사유로 잦은 결항, 시설의 질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재단을 설립했다.

신안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운영했으나 전문성, 책임감, 안전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돼 왔다.

교통재단은 해상교통의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한 층 더 높은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취항식을 갖은 남부권역 항로는 기존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항의 지속을 담보할 수 없고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신안군은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해 오던 선박 3척을 인수해 공영화했다. 군에서 인수한 3척의 선박은 천사 1, 2, 3호로 선명을 변경했다.

천사1호는 364톤급, 천사2호는 486톤급, 천사3호는 720톤급 등이다. 총여객 1,027명, 차량 119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천사1·3호는 하의·신의·장산-목포 항로를, 천사2호는 안좌에서 장산·신의·하의 간을 신설 운항한다.

신안=이주열 기자

진도군, 울돌목 주말장터 매주 11시부터 개장

진도군은 ‘울돌목 주말장터’가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진도군 특산물과 농·수산물물을 활용해 만든 요리를 판매하며 상인들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말장터에서는 진도의 특산품을 식재료로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인다. 전복을 이용한 전복차돌삼합, 전복가사리국밥, 전복꼬치를 비롯해 간재미 회무침과 찜, 송어회, 대파해물 짬뽕 등이 미식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터에서는 진도곰장김과 자연산 돌미역인 조도파, 다시마, 진도흑미, 참가사리 등 진도 특산물 판매도 함께 진행된다. 진도=박병호 기자

함평군, 수도권 소비자 40명 초청 팸투어

함평군이 지역 농산물 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 소비자들을 초청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평군의 농촌자원과 축제 콘텐츠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는 수도권 직거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기도 안산시 벽산블루밍 아파트 대표자와 부녀회 등 주민 40여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함평나비대축제 방문해 황금박쥐 전시관, 나비곤충생태관 등을 견학하고 나비 날리기, 황박이 모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매력을 직접 경험했다.

함평군은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현장 체험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방울토마토 스톱트팜에서 토마토 재배 과정과 수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수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함평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에게 지역 특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알리고, 향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도시 간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도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강진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중기부 공모 선정 180억 투입

강진군이 180억원을 들여 강진산단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강진군은 강진산단에 국·도비 142억원 포함 총 18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 지역 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진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테크(C-Tech) 지식산업센터’로 방향을 설정했다. ‘기후테크’는 수의 창출과 함께 탄소 감축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산업을 뜻한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강진군 고유 산업 특색을 반영한 전략이다.

강진군은 ‘기후테크’의 5대 분야 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카본(Carbon)’, ‘에코(Eco)’, ‘푸드(Food)’ 세 가지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식품 생산 및 농산물 재배 과정의 탄소 감축 기술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망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분야 유망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산단 내 공장 입주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액커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강진군은 아울러 센터 입주기업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와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시제품 제작과 정보 공유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도 설치해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현재 환경산업진흥원 및 전문 투자사와 협력해 선정한 41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 향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진군 특화 산업과 기업 육성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신안소방, 생활안전서비스 홍보활동

신안소방서는 최근 119생활안전순찰대와 신안군 복지기동대가 협업해 생활안전서비스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안전서비스는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순찰대와 복지기동대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화재감지기 점검, 전기·가스 안전 확인, 노후 시설물 등을 개선했다.

류도형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농협 나주-하동지부, 고향기부금 상호 기부

농협 나주시지부는 최근 하동군지부와 나주시청 부시장실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과 허영우 나주농협 조합장, 오흥석 지리산청학농협조합장, 제해중 나주시부장, 장주익 하동지부장 등 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상호 기부는 나주농협과 지리산청학농협 임직원 60명이 동참했으며, 각각 300만원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 나주농협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하동군에 성금 200만원을 별도로 기탁했다.

제해중 나주시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내 농협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강진경찰, 보이스피싱 감시단 위촉

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6개소 인근 12명의 상점 업주를 보이스피싱 감시단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진경찰은 보이스피싱 감시단으로 위촉된 상점 업주들을 직접 방문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감시단 역할과 효과 등을 설명했다.

감시단은 고객이 고액을 인출 시도,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 통화하며 ATM기를 이용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행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에도 나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진경찰은 감시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한태선 기자